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04

2018.12.30

송구영신호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_ 갈라디아서 2:10

오늘의 주요기사

2~3면	담임목사 신년 인터뷰
4면	사역 소식
5면	사역 직분자
6면	정신학원 선교 소식
7면	목회 칼럼
8면	아기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12/31(월)	송구영신예배
1/6(주일)	신년감사주일(성찬주일)
1/7(월)~12(토)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20,27(주일)	신임서리집사교육
1/27(주일)	제직수련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나는 언제 눈을 맞으며 저 눈길을 걸어보나”

2018년 12월 어느 눈 내린 날, 호스피스 병동의 예수 넷 되신 환우분이 발맞사지를 하는 봉사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창밖의 저 소박한 눈길조차,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걸어볼 수 없는 소망과 회한의 대상이다.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는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를 맞는다. 하나님 새로 주시어 우리 앞에 놓인 이 순결한 시간 자체가 큰 은혜이니, 여기에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는 온전히 새날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벅찬 소명이겠다.

함즐함울

신년 특집 | 담임목사 인터뷰

2019년 새해를 벅찬 소망 가운데 맞습니다

2018년이 저무는 12월 23일 주일 오후, 함줄함울 팀은 김화수 담임목사를 만나, 부임 1년을 맞은 소회, 새해 목회에 대한 소망과 각오를 들었다.

교회 창립 초기 부목사로 재임하셨던 교회에 담임목사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되어 30주년을 맞으면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사모님과 가족들도 대구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야 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1년을 맞으신 소회와 함께,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좀 여쭙봐도 될까요?

제 사역의 고향인 주님의교회로 만 19년 만에 돌아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1년이었습니다. 교우들 중에는 사역이 너무 많아 힘들지 않느냐고, 피곤치 않느냐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지난 1년은 힘들도 피곤함도 거의 느끼지 않았던 제 30년간의 목회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졌고, 좋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강력한 성령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좋은 동역자와 함께 사역의 지경을 더욱 더 넓혀가기 원합니다.

아버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어머님은 1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셔서 모태신앙이고 제가 2남 2녀 중 장남입니다. 저희 남매는 모두들 중직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학업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올해, 담임목사님도 새로 부임하시다 보니 30주년 기념행사들과 함께 성찬식 주기 변경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을운동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미디어위원회에서 교회 최초로 전교인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급하신 변화 외에는 실제적으로는 변화를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예배 포맷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고, 교회 내 다른 사역들도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은 사역의 첫 해인지라 달라진 사역현장을 좀 더 지켜보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첫 해를 보내면서 10년의 청

사진을 그리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설문조사였는데, 4217부가 배부되고, 이 중 2218부가 회신되어 52.6%의 회수율이었습니다. 교우들이 교회사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여서 놀라기도 하고 아주 감사하기도 했던 기억입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역은 무엇이었는지요?

제 10년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실제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가정이 그 중심이 되기에 가정이 신앙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핵심베이스인 큐티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활성화를 위해 피택자 교육, 시무장으로 새벽큐티 및 기도회, 겨자씨 인도자 모임과 기타 소그룹 나눔과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큐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교우들이 핸드폰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일상속에 큐티나눔을 하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교회 내적으로 익숙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우리들만의 천국'에 안주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이라는 주님의교회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여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이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실제 생활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덕목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교우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일상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영성을 깊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도 일상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통법규 준

수로부터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등등 작지만 실천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지만 제가 확신 가운데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앞장 서 있는 저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일상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주변의 더불어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교우들이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로 살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11월 25일 '주님의교회 사역 청사진(2018~2027)'을 선포하시며, 재임기간 동안 집중하실 목회 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몇 가지 새로운 용어와 이름들이 이채로웠습니다. '유·유·청·청 리바이벌'을 우리 교회의 다음세대를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아 숲, 유소년 숲, 청소년 숲, 청년 숲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또한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를 통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에는 "아름다운 부모학교, 가정예배학교, 마더와이즈(Mother Wise), 파더와이즈(Father Wise), 성인을 위한 센싱나무, 결혼예비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 과정이라면 교회에서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목회자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방이나 상담의 형태인지, 아니면 이런 목적을 지향하는 운동의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개념이 이미 연구되고 실행된 선행 사례에서 가져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만드신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선행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교회에 이를 적용/원용하시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교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교육의 오래된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우리의 현실은 가정보다 교회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뒤바뀐 신앙교육의 여파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의 신앙의 삶이 되었고, 가정생활은 교회생활과는 전혀 별개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인지라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이름



주님의교회에 다시 돌아와 지난 1년은 힘들도 피곤함도 거의 느끼지 않았던, 제 30년간의 목회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은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세상의 여타문제들이 가정에 침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신앙교육의 주체를 가정으로 삼고 새로운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인지 모르지만, 지금이 적기라 여겨져서 교회 창립 30주년 되는 해에 신앙교육의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고자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를 세우고 그 센터를 대전환의 중심으로 삼고 신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은 개설된 강좌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일방적인 강의 형태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실제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강좌는 교육과정은 우리가 포맷하고 강사는 외부 내부 강사들이 강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미국의 D6 Family에서 지난 20여 년간 진행했던 내용을 참고하기도 하고, 먼저 앞서간 교회의 교육프로그램도 참고해서 주님의교회 스타일의 강의내용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강의내용은 앞으로 강좌 홍보물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온 교우들을 대상으로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의 사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새해에는 신앙교육의 주체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고자 뷰티풀 페어런팅 센터를 세우고 그 센터를 대전환의 중심으로 삼고 신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혹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세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회 내 중장노년층에 대한 목회 방침이나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교계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변화의 의미를 찾고 신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 중장노년층을 위한 새롭고 깊이 있는 신학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이 시대에 대응하여 ‘말씀’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 교회-가정에서의 변화와 함께 교회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장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따로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장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교계의 과제이고 우리 교단의 과제가이기도 합니다. 중장노년층은 교회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강좌에 함께 동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 같은 강좌들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만 있다면 장신대 등에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도록 용역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힘을 써서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교회에 접목하려 합니다.

2019년에는 특히 가정을 통한 신앙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고하신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밖의 다른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요예배에 적잖은 변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수요예배 활성화를 위해 교구별 금요기도회를 교구별 수요기도회로 옮겨서 전교인 대상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갖게 되고, 부서 및 기관이 주관하는 특성화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시리즈 강해설교를 일정 기

간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외부 강사를 모셔서 특별한 관심분야에 5주 혹은 10주 정도를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는 등등 수요예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겨자씨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겨자씨 인도자와 나눔의 장을 준비하려 하고, 큐티의 일상화를 위해서 5주간의 큐티학교를 전후반기 6차례 개설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새해를 맞아,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가치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더 행복해져 가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의 만남의 주 타피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행복한 가정(한 부모 가정을 포함)을 꾸려가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한 해가 되어서



새해에는 수요예배에 적잖은 변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겨자씨를 활성화하며, 올해에 이어 큐티의 일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바쁘신 시간 쪼개어 이렇게 소중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사역 간증

2018년 성탄 찬양 예배 <사랑의 왕(King of Love)>



칸타타를 앞두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신입대원인 저는 과연 이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선배님들께 여쭙봤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 걱정 말라 안심을 시켜주시는 분도 계셨고, 성도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여름부터 열심히 연습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한 선배님께서 칸타타 공연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자 하는 제 마음을 아시고 정곡을 찌르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순간 모

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칸타타가 시작되기 전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보며 잠시 긴장했지만 “합창은 희생임을 강조하며 2년 동안 우리를 지도하신 민태경 지휘자님과 앞뒤 좌우로 주일마다 함께 새벽을 깨운 선배님들이 뵈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만을 떠올렸습니다. 몇 군데 실수를 했지만 내가 무엇이 관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나 싶어 벅차오르는 감격을 애써 눌러야만 했습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하고 뜻 깊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의 말씀처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기쁨도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1,800명의 성도가 함께하여 역대급 참여라는 말도 들리고 목사님께서 발박수를 치며 호응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인사를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잘 알기에 그저 감사

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찬양 예배는 호산나 주관이었지만 2부, 3부, 4부 찬양대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연주를 해주신 주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스텝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분들로 인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내년 찬양예배를 기대하며 칸타타 사랑의 왕 공연 소감을 마칩니다.

덧붙임: 주일 새벽을 깨우고 싶은 분들은 주님의교회 1부 호산나 찬양대로 오세요.
염인호 집사

사역 소식 | 섬김과 나눔

정신여중고에서 사랑의 털목도리 전달



12월 18일(화) (사)섬김과나눔에서는 정신여중고학생들이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캠페인으로 만든 털목도리 398개를 기증받았다. 여고에서 털목도리 238개와 여중에서 털목도리 160개 모두 398개를 기증받았다.

정신여중고생들이 봉사활동으로 뜨개질을 배우며 한코 한코 만들어 기

증 받은 털목도리는 병상의 환우들과 장애인들과 추운 겨울을 지낼 노숙자들과 농어촌교회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정신여중고생들이 주님의교회를 더 가까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섬김과나눔

학생 간증

매우 뜻 깊고 뿌듯했던 기억

2학기가 시작하고 첫 기술 가정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뜨개질 수업을 한다고 하셨다. 초등학교 때 잠깐 뜨개질을 배운 후 한 번도 뜨개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 모두 코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 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우리가 만든 목도리를 주님의교회를 통해(‘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기부를 한다고 하셔서 친구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목도리를 만들었다.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가사실에 가서 열심히 뜨개질을 했다. 한 코씩 한 코씩 뜰 때마다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행복해졌다. 처음 뜨개질을 배우는 친구들에게 목도리 뜨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선생님께서 틀린 부분은 친절하게 잘 고쳐주셔서 모두들 2학기가 끝나갈 때 즈음에는 완성이 되어갔다. 커다랗고 둥근 실타래가 기다란 목도리가 되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이 목도리를 받은 친구나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이 겨울 내내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색색이 기다란 목도리를 완성한 친구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뿌듯함이 보였다. 평소에 각 반에서 유니세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것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기부를 해 본 적이 없었고 동참할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학생들 스스로 배워서 학생들이 가진 능력으로 기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뜻이 깊었고 뿌듯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도 발굴하고 기부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노영지 / 정신여고 1-9

사역소식

호스피스 봉사자, 옥천봉사상 수상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에서 봉사하는 교인들이 지난 12월 13일 각당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옥천봉사상을 받았다.

각당복지재단은 1986년 12월 13일에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1992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한 이래, 산하에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를 두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한국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를 두어 의학적 치료의 한계에 도달한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남은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돕고 있으며,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를 두어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옥천봉사상은 자원봉사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1989년 각당복지재단에서 제정한 상으로, 믿음상(만 4년 지속적

인 봉사), 소망상(만 8년 지속적인 봉사), 사랑상(만 12년 지속적인 봉사), 옥천봉사大賞(만 15년 이상 봉사지도자로서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공헌한 자)로 구성된다.

이날 거행된 각당복지재단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 옥천봉사상 대상을 주님의교회 교인인 문춘자(전 교회 권사) 봉사자가 받아 눈길을 끌었다. 문춘자 권사는 2001년에 무지개호스피스 연구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국립의료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17년 동안 봉사해왔다. 이밖에 설정희 권사, 이금옥 집사, 이성자 집사, 임경수 안수집사가 믿음상을 받았고, 김영희 집사, 도성자 은퇴권사, 최정혜 집사가 소망상을, 유지은 집사, 배숙자 집사, 신형섭 안수집사가 사랑상을 받았다.

함글함글

사역 소개 | 호산나 선교 무용팀

몸 찬양으로 전하는 말씀의 감동



호산나 선교 무용팀에서는 2018년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사) 섬김과 나눔 위탁 기관인 마천복지관 데이케어 센터 개관식 축하공연과 교회 행사로 여전도 예배와 권사회 예배 공연과 군선교회 신병 교육대 6사단 세례예식 선교공연과 농어촌 교회 봉사로 파주 삼성교회 이웃 초청 잔치 공연과 하나원 탈북민 예배 특별 공연과 사랑의 교회 호스피스 위로 공연 등 여러 곳을 방문하여 일 년에 10 여차례 선교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예배자리에는 선교무용으로 몸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감동을 전하고 대외적으로 선교 행사에서는 한국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정성을 다한 우리들 무용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연습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은 보람으로 바뀐다.

하나원에선 떠나온 고향과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과 농어촌에서는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배당 뜰을 밟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 호스피스 봉사자나 사별 가족을 위로하는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로 공연을 보며 함께 춤추고 찬송할 때에는 보는 분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커다란 감동의 물결이 쌓인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좌절하는 곳에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 호산나 선교 무용팀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하였고 현재 25명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1층 유치부실에서 연습을 하며 땀을 흘린다. 호산나 선교 무용팀에서는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이혜숙 권사

신년특집

새로운 소망을 담는 2019년, 새 사역직분자를 소개합니다

장년 전임교역자

	교역자	교구/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1	김대환	선임행정	전문위원회(기획,인사,치리) 미디어관리분과위원회(신설)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2	문희삼	7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상례위원회(전), 자치회(권사회)
3	정창화	5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성찬/세례 · 입교, 중보기도, 자치회(안수집사회)
4	허 준	3교구	통일선교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교적관리, 자치회(남선교회)
5	이은석	1교구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전문선교분과위원회	기획, 선거관리위원회(전), 자치회(여전도회)
6	황바울	4교구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신설)	섬김과나눔(사단법인)
7	박주영	2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 양육클래스
8	이종성	6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중보기도(찬양)
9	한시영	8교구	젊은이분과위원회	Beautiful Parenting Center(신설), 큐티사역
10	존수나이더	EM	EM분과위원회	영어예배, 어린이영어예배, 한국어학교
11	김영한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청년 총괄
12	임경순	청소년	청소년분과위원회	가정과교육연계/협력,청소년사역총괄, 청소년사역원
13	문은영	유소년	어린이교육목회원(취학)	가정과 교육 연계/협력, 초등2부, 어린이제자훈련, 새벽기도부
14	이은미전도사	영유아	어린이교육목회원(미취학)	가정과교육연계/협력,영아1,2부,아기정원, 센싱더스토리
15	손경민전도사		양육/자료관리위원회s	미디어행정(IT/방송/음향), 설교정리
16	유 준 전도사		소그룹분과위원회s	소그룹행정, 찬양s, 피택자교육s, 새가족s
17	김성윤전도사		해외선교분과위원회s	장학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회학교 전임 및 교육교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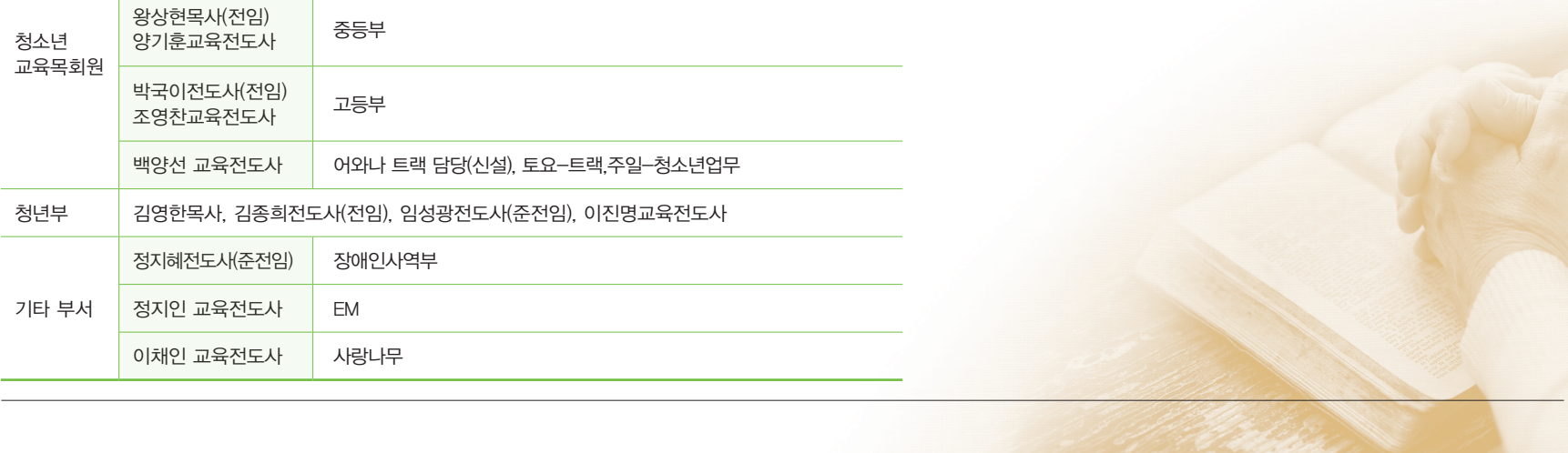
	교역자	사역 및 부서
어린이 교육목회원 (미취학)	이은미 전도사	어린이교육목회원(미취학),영아1,2부,아기정원,센싱더스토리
	김오정전도사(준전임)	어린이교육목회원(미취학) 행정, 아기부, 어와나(커비), 커리큘럼개발
	이수진 교육전도사	유치1, 2부
	이은솔 교육전도사	유아1, 2부
어린이 교육목회원 (취학)	문은영 목사	어린이교육목회원(취학),초등2부,새벽기도헌신자,어린이제자훈련
	권효정 교육전도사	유년1부, 어와나(볼티)
	권순철 교육전도사	유년2부, 어린이제자훈련 보조
	황원석 교육전도사	초등1부, 어와나(티앤티)
	정호영 교육전도사	소년1부, 어린이제자훈련 보조
	김형일 교육전도사	소년2부, 어린이제자훈련 보조
청소년 교육목회원	임경순 목사	청소년교육목회원 총괄
	왕상현목사(전임) 양기훈교육전도사	중등부
	박국이전도사(전임) 조영찬교육전도사	고등부
	백양선 교육전도사	어와나 트랙 담당(신설), 토요-트랙,주일-청소년업무
청년부	김영한목사, 김종희전도사(전임), 임성광전도사(준전임), 이진명교육전도사	
기타 부서	정지혜전도사(준전임)	장애인사역부
	정지인 교육전도사	EM
	이채인 교육전도사	사랑나무

사역직분자(위원장)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목양 위원회	담임목사	김화수	김화수	
	선임목사	장수현	김대환	
	행정목사	정창화	이은석	
	서기장로	김성구	지유철	
	재정장로	최성준	이성준	
	감사장로	지유철	김성구	
	(간사장로)	(손천숙)	(김학원)	
	예배분과	심동욱	심동욱	
	음악분과	김익훈	김익훈	
	소그룹분과	손천숙	김학원	
교육 위원회	양육분과	황용환	유정식	
	미디어분과	강진식	-	전문위원회로
	젊은이분과	이성준	김광일	
	봉사분과	유정식	강석인	위원: 이현식 피택장로
	(간사장로)	(김유호)	(김유호)	
	어린이분과	김학원	김유호	위원: 김은성 피택장로
	청소년분과	이용수	이용수	
	청년분과(2030)	배익환	배익환	
	EM분과	김유호	최성준	
선교구제 위원회	(간사장로)	(동현수)	(손천숙)	
	국내선교분과	서준규	황용환	
	통일선교분과	정종국	동현수	
	해외선교분과	동현수	손영익	
	전문선교분과	강석인	서준규	
	구제복지분과	-	조병길	
	장애인복지분과	김익훈	-	구제복지분과로 통합
부설기관	청소년사역원	이용수	이용수	*
	뷰티풀 페어런팅	-	김광일	*
	(사)섬김과나눔	노봉옥	손천숙	위원 : 김낙균 피택장로

교구 교역자

교구	부 목 사	교구전도사
1교구	이은석 목사	유 준 전도사 (소그룹담당)
2교구	박주영 목사	
3교구	허 준 목사	
4교구	황바울 목사	
5교구	정창화 목사	
6교구	이종성 목사	
7교구	문희삼 목사	
8교구	한시영 목사	이지형 교육전도사



청소년사역 | 정신학원 선교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만남의 역사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의 동행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 깊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정신학원 선교의 역사와 현황을 요약해 소개합니다.

태동

예배당 무소유와 헌금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교회의 창립정신을 구체화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개최된 주님의교회 정기당회에서 정신여중고 강당 건축 및 헌납에 대한 안건이 상장되면서, 주님의교회의 학원선교사역은 태동되었고, 1998년 11월 정신학원 김마리아 회관이 준공되고 헌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시범적으로 정신여고 성경교육에 주님의교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신여고 1개 학급의 성경공부 시간 중 매월 1시간을 주님의교회에서 맡아서 교육하게 된 것이 정신학원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다.

사역의 취지와 진행

학원선교사역의 취지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학생들에게, ①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어른**, ② **어떠한 경우이든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③ **기도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보호자이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른이 되어주자는 것**이다. ‘선생님’은 가르침과 평가의 이미지가 강하고, ‘엄마’는 잔소리꾼의 이미지가 떠오르기에, 좀 더 가깝고 편안하고 믿고 기댈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었다. 사역 초기에는 ‘성경어머니’

의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정신여중은 ‘사랑어머니’로, 정신여고는 ‘기도어머니’의 이름으로 맡겨진 학생들을 딸처럼 품에 안고 기도하며 또한 필요시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며 현재까지 학원선교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학원선교사역의 구체적인 내용

〈사랑어머니〉(인성훈련과 복음제시, 상담사역)는 정신여중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나눔과섬김’ 수련회(2학년 대상) 중 ‘인성훈련’시간(2시간)에 학생들을 만나 상담사역을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눈다. 인성훈련 후에,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만나 1:1로 복음을 전한다. 〈기도어머니〉(수업참여사역)는 1달에 한 시간, 년 9회, 학생들과 ‘기도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자연스레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역이다.

그 외의 사역으로는 성경보급(정신여중고 신입생), 매일성경큐티책 지원(정신여중, 60권/6회), 밀알수련회 간식지급(정신여고 2학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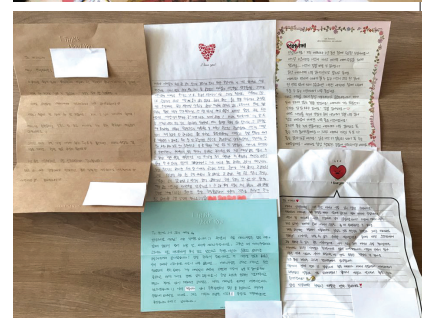
청소년 사역의 핵심 : 전적인 용납과 수용, 존중과 배려, 환영과 환대 ‘카나리아’ 새는 영화나 소설에서 ‘독가스센서’로 사용된다. 실제로 광산에서는 갱도 안에 새 장을 설치해 공기의 안전도를 가늠하기도 한다. 청소년

학원선교사역의 연혁

년도	내용
2001년	· 정신여고 1개 반을 대상으로 매월 1시간 성경수업으로 사역 시작
2002년	· 정신여중 학생 중에서 기독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제시 시작
2003년	· 주님의교회 학원선교부에서 7명의 ‘성경어머니’를 정신여고 2학년 네 개의 반으로 파송함.
2004년	· 정신여고 ‘성경어머니’ 25명 파송
2005년	· ‘성경어머니’를 ‘기도어머니’로 명칭 변경. · 정신여고 2학년 15개 반 모두에게 주님의교회 ‘기도어머니’ 파송. · 정신여중 2학년 13개 반을 대상으로 ‘사랑어머니’ 인성프로그램과 복음제시 사역
2008년	· 청소년사역원 개원으로 년 2회 학원선교부 전체 세미나 개최. · 월 1회 ‘기도어머니’ 수업 준비 모임 시작
...	...
2018년	· 정신여고 2,3학년 13개 반에게 주님의교회 ‘기도어머니’ 파송. · 정신여중 2학년 13개 반을 대상으로 ‘사랑어머니’ 인성프로그램과 복음제시 사역 · 정신여중고 핸드볼팀 학생들 대상으로 복음제시 사역 · 사랑어머니 20여명과 기도어머니 77명이 봉사.

은 우리나라, 우리 시대, 우리 문화의 카나리아이다. 청소년의 상황은 어른들의 상황과 맞물려 있고 한국 사회의 현주소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국가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물질적인 풍요도, 특별한 프로그램도, 스킬도 아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마을 안의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이 필요하다.

기도어머니, 사랑어머니의 사역이 정신학원의 청소년들에게 마을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무조건적인 용납과 수용, 존중과 배려, 환영과 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아이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계속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청소년들을 살리는 마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정신학원선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임경순 목사



“인성훈련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었다. 대화를 통해 나에 대해 반성도 하고 내 장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신여중 2학년

“매달 간식을 들고 와주셨던 어머니! 삭막한 고3 생활에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이름도 다 외워서 불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마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매번 함께하는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여고 2학년

목회칼럼

“목사님, 오늘 예배 기대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살후 1:3)

주님의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린 영유아였던 친구들이 초등학교생이 되었고, 초등학교생이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나보다 더 키가 커진 걸 보면,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음을 새삼스레 느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지난 주 대림절 4주 째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장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까이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했다. 앞자

리에 앉아 있던 5살 현우가 “목사님! 오늘 예배 기대돼요!”라며 갑작스런 고백을 하였다. 순간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대 속에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맡아 매주 봉사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다. 가까운 친척, 친구도 바쁜 일정 속에 만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매

주일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며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다르지만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모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것처럼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의 5년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역의 여정 중에 진심으로 동참해 주신 선생님들, 성도님들, 교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언제까지나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다.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앞으로의 삶이길 소망한다.

양은영 목사 / 어린이교육목회원 유아부

사역 보고

하나원생 도시문화생활체험

성탄절 다음날은 26일 주님의교회에서는 매우 귀한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하나원 252기 교육생, 69 명의 탈북 자매님들이 도시문화생활체험의 일환으로 주님의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주님의교회 권사님과 여집사님 40여 분이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원 자매님들에 대한 이해와 도시문화생활체험을 돕는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자매님들의 실제 방문이 있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하나원 252기 자매님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올 때 우리 봉사자들은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만나는 심정으로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름 피켓을 들고 기다리다가 자매님들이 보고 다가오면 얼싸안아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하식당에 준비된 자리로 이동하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환영사와 한정협 석 장로님의 도시



문화생활체험 교육을 들은 후 하나원 자매님들과 봉사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도시문화생활체험을 위해 흩어졌습니다. 이후 약 4시간에 걸쳐 대한민국에서의 첫 도시문화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탔습니다. 주민센터도 방문하고, 은행도 가보고,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함께 맛있는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떡볶이같은 군것질도 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교회에 복귀하여 하나원 자매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매님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에서의 첫날들이 너무 새롭고 즐거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함께 동행하며 섬겨주신 권사님, 집사님

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남한 사회에 정착할 때에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다시 만나요’ 노래를 함께 부를 때에는 눈시울이 축축이 젖고 서로 얼싸안아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섬겨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원 252기 자매님들은 내년 3월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온 후 정착결연사역으로 다시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원 자매님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신앙을 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통일선교분과위원회

큐티나눔 | 마태복음 6:25~34

모든 걸 구하고 나의 몫으로

새벽녘 눈물로 드렸던
평생 어리숙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닮게 하소서

가진 게 없어 드릴 것은
오로지 기도였음에

그렇게 매일 같이 빌었던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 속에 내 몫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없지만

취업한 자녀가 입을
두 자 크기의 셔츠를
다림질 해 줄 수 있기를

한 뼘의 손을 이마에 얹고
대 여섯 자까지 자라는 아이를
축복할 수 있기를

그 것만을 내 몫으로
돌려 주소서

김형일 전도사 / 소년2부

아기나들이



임재찬 아기

2018년 8월 22일생

1.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건강
2. 공홀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3. 지혜 앞에 겸손하고 불의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아빠 임지웅 성도 / 엄마 나지은 성도 2018년 12월 9일 3부 예배

감사 편지

주님의교회 교우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제3보병사단 23연대 십자군교회입니다. 특별히 본 교회는 백골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음향시설 및 세션을 젊은이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드림이 낙후 되어 기도하던 중 주님의교회 진중세례식 때 사정을 나누게 되었고, 후에 연락을 주셔서 단번에 주님의교회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십자군 교회는 신교대 교회로는 전군에서 제일 작고, 전반적인 예배당이 노후한 상태이나, 부대개편과 더불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중병들과 함께 교회를 새롭게 꾸미며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섬김의 열매로 교회는 현재 훈련병과 장병, 민간인이 출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됩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글로써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후원금으로 드림을 구입하여 성탄절 예배부터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군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2019년도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성 군중목사 / 보병 3사단 십자군 교회

알립니다

2019년에도 <함즐함울>이 함께 합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함즐함울>이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나누는 <함즐함울>이 되겠습니다.

함즐함울 모니터위원회 운영

교회의 여러 구성원을 대표하는 모니터를 모시고 계절마다 속 깊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모니터제도를 도입합니다.

유유청청 특집호

유유청청의 해를 맞아, 유소년, 청소년, 청년 특집호를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역팀 탐방과 겨자씨 소식

낮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역팀을 찾아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의 가족인 겨자씨의 알콩달콩한 속사정을 알립니다.

“올바른 교회 용어” 재수록

많은 독자의 요청에 따라, 2013년 연재했던 “올바른 교회 용어”를 다시 연재합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년 한해,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함즐함울

알립니다

1. 신년 교회 달력 배부

안내데스크에서 1부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송구영신예배

일시 : 12/31(월) 오후 11:00

▶ 당일 간지로 배부된 신년기도제목카드에 2019년 기도제목을 적어 비치된 함에 넣어주시시오.

3.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 2019년 1/7(월)~12(토)

주제 :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 6:5~7)

▶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가 매일 진행됩니다.

▶ 개근작정 게시판 운영

준비된 스티커에 본인 이름을 기록하신 후 게시판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1층 로비)

4. 휴무 및 방학 안내

▶ 도서관 : 2019년 2/8(금)까지 (주일은 정상운영)

▶ 전화상담실 : 12/31(월) ~ 2019년 2/1(금)

▶ 설만찬물가 : 12/31(월) ~ 2019년 2/6(수)

▶ 수요일 어린이 영어예배 : 방학(1월 한달간)

5. 아버지학교(강남60기) 자원자 모집

일시 : 2019년 1/13~2/17(5주간) 매주일 오후4시

장소 : 소년부실(3층) 회비 : 12만원(1층 로비등록)

문의 : 김명훈 안수집사(010.5285.6032)

6.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2019년 1/9(수)부터

장소 : 교회 사무실(직접방문, 전화신청 불가)

홈페이지(온라인 사무실 / 온라인 기부금 납입증명서 이용)

▶ 교적 핸드폰 번호가 다른 경우 본인 인증이 안됩니다. 바뀌신 분은 변경 신청해주세요.

문의 : 경리간사(02.416.5181)

7. 2019 새벽기도부 모집

교회와 나라를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신청: 교회로비)

문의 : 김복수 안수집사(010.3034.0123)

8. 정신학원선교부 기도, 사랑어머니 모집

청소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정승아 권사(010.2416.4538)

9. 청소년분과 멘토 모집 (재능기부: 특강, 1:1만남, 소그룹 만남 등)

교회와 정신학원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10. 중등부 교사 모집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문의 : 왕상현 목사(010.9621.2196)

11. 한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모집

외국인유학생선교부에서 한국어강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고광중 안수집사(010.3323.2337)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